

『보육일안(保育日案)』으로 살펴보는 유치원 담화연구

박인경*

국문초록

『보육일안』은 1938년 중앙보육기관의 교사였던 차사백에 의해 쓰여진 보육교사 지도서로서, 유아보육의 4가지 항목인 유희, 창가, 담화 및 수기의 내용들이 주제에 맞춰 월별, 주별, 일별로 구성되어 있다. 1930년대 아동문학계에서는 유년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 일간지와 아동잡지에 많이 실렸으며, 그 동안의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여기에 소개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유년문학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보육일안』을 통해서 실제 보육기관에서 유년들에게 들려 주었던 담화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측면에서 유년문학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일안』에 수록된 담화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주제별로 제시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차사백의 또 다른 저서인 『보육요체』에서 소개된 담화의 4가지 하위 요소(우언, 동화, 신화와 영웅담, 사실담화와 우반사항의 담화)를 중심으로 담화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담화 속에서 그 당시 유년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과 담화를 통해 유년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는 점, 그리고 담화 속 인물의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전하고자 했다는 점 등을 통해 『보육일안』 속 담화가 아동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언으로 소개된 전래동화를 통해 『보육일안』에 외국의 동화만을 번역한 것이 아닌 우리의 민족성을 담고자 했던 차사백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인하대학교, inkyung33@naver.com

■ 주제어 : 유치원 보육, 담화, 유년문학, 아동문학

목 차

- | | |
|--------------------------------|-------------------------------|
| 1. 『보육일안』의 담화가 지닌 유년문학으로서의 가능성 | 4. 『보육일안』의 내용 구성 및 분석 |
| 2. 근대 유치원 보육과 부모의 사회적 위상 | 5. 『보육일안』의 담화가 지닌 유년문학으로서의 의미 |
| 3. 차사백의 생애 및 담화에 대한 관점 | |

1. 『보육일안』의 담화가 지닌 유년문학으로서의 가능성

『보육일안(保育日案, 동광당서관, 1938)』은 차사백(車士白, 1897~1990)에 의해 쓰인 보육 지침서로 실제 보육 교사들이 유치원에 온 유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한 보육교사용 도서이다. 1930년대 중반 무렵에는 대부분의 일간지와 아동잡지에서 ‘아기네 소설’ ‘아기네 차지’ 같은 유년 꼭지들을 운영했지만,¹ 실제 유년들을 위한 보육기관에서 어떤 작품들을 어떻게 들려주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실제 보육과정 속에서 유년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보육일안』의 분석은 당대 유년문학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물론 교육이라는 목적 하에 쓰인 작품들이기에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월별 또는 주·일별 주제에 맞춰 소개된 다양한 소재와 내용들은 유년

1 원종찬, 「1930년대 동화·소년소설의 변화」, 『창비어린이』 14(3), 2016, 163면.

위 논문에서는 1930년대 아동문학의 변화 속에서 등장한 유년동화의 배경 및 내용들을 아동문학의 전체적인 윤곽 내에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정진현은 1930년대 동아일보에 실린 유년동화 연구(2016)와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동화』 『소년』 등에 실린 유년문학에 대한 연구(2017)을 통해 1930년대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된 유년문학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문학으로서의 연구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당시 유아보육의 항목은 유희, 창가, 담화 및 수기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 차사백은 또 다른 저서 『보육요체(保育要諦, 중앙보육학교, 1936)』에서 담화를 다시 우언, 동화, 신화와 영웅담, 사실담화와 우발사항의 담화로 구분 짓고 있다.² 여기서 담화 내에 동화가 하위 항목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 지금의 동화가 위 4가지 하위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육일안』에서 소개되는 담화의 내용들을 지금 현재 통용되는 동화라는 큰 관점에서 바라보되, 차사백이 구분지은 담화의 하위 요소를 기준으로 『보육일안』 속 담화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³

『보육일안』은 각 담화별로 작가가 소개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인 저자로 차사백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사백에 의해 외국의 동화들이 번역되었음을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중앙보육기관의 교수진 구성을 보면 방정환이 아동문학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차사백의 담화 구성에 방정환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또한 차사백은 1931년 조선보육협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조선보육강연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그 당시 동아일보 신문기사를 통해 자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 각지의 보육기관에 미쳤던 그녀의 영향력

2 1922년 2월 16일자로 공포된 「유치원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보육의 항목으로 유희, 창가, 담화 및 수기의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차사백의 『보육일안』(1938)에서는 주제에 맞춰 1일에 각각 4가지 항목의 보육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4가지 유아보육의 항목 중에서 ‘담화’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담화’는 보육기관에서 유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점을 뜻하며, 차사백의 다른 저서인 『보육요체』에서는 담화를 다시 우언(寓言), 동화(童話), 신화(神話), 영웅담(英雄談), 사실담화(事實談話), 우발사항의 담화(偶發事項의談話)의 4가지로 구분 짓고 있다.

3 본고에서 『보육일안』의 담화 분석의 기준으로 차사백이 구분한 4가지 담화의 하위 요소를 설정한 이유는 담화에 대한 차사백의 관점을 바탕으로 그 당시 통용되었던 담화의 의미를 연구해 보기 위함이다.

과 더불어 보육기관에서 『보육일안』이 많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1930년대 유치원 보육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보육일안』의 저자인 차사백이 지향하고자 했던 담화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담화 분석을 토대로 『보육일안』이 지닌 유년문학으로서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근대 유치원 보육과 부모의 사회적 위상

지금은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은 다른 개념⁴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1920-30년에는 유아교육이 곧 보육이었다. 본고에서는 유치원이든 보육기관이든 유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이 둘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며, 그 통일된 개념으로 유치원 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920년대 한국의 유치원은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1922년 2월 16일자 부령(府令) 제11호로 소학교령에 포함된 「유치원규정」을 공포하였는데, 전문 13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유치원은 연령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유아를 보육하는 데 그 심신을 건전히 발달시키고 선량한 습관을 길러

4 유아교육기관의 종류는 국가마다 설립 목적, 교육 목표, 대상 유아, 설립 단체의 성격, 기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만 3세에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관할 지역 교육청의 지도감독 하에 유치원교육과정을 따른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구청의 지도감독 하에 표준보육과정을 따른다. 방인옥 외 4인, 『유아교육과정』, 정민사, 2013, 14-17면. 2009 교육과정에서는 만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교육과정인 누리교육과정이 제시되었다.

가족교육을 보충함을 요한다. 유아의 보육은 그 심신 발달의 정도에 부응하고 획득(會得)하기 어려운 사물(事物)을 과(課)하고 또 과도의 업(業)을 과할 수 없다. 항상 유아의 심정 및 행의(行儀)에 주의하고 이를 바르게 하고, 예시해서 이를 따르게 한다. 항상 선량한 사례를 예시해서 이를 따르게 한다.

제6조 유아보육의 항목은 유희, 창가, 담화 및 수기(手技)로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치원 대상을 명확한 연령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우리가 유년문학이라고 규정짓는데 있어서 유년문학의 대상을 유치원 대상 유아로 설정한다면, 그 연령을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한국 근대교육에서 선교사가 미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특히 유치원 보육에 대한 기독교 선교사의 영향력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아교육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이상금은 기독교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유치원을 그 당시 유일한 민족교육을 실시한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유치원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 국가총동원 체제에 돌입하고 황민화교육에 광분하였던 1940년대 전후에도 유치원만은 거의 방치상태에 놓아두었다. 체제상으로는 전시탁아소나 농촌탁아소로 전향시키는 사례도 있었으나 교육 내용은 간섭하지 않았다. 물론 사회 일반이 급속도로 일본화 됨에 따라서 유치원에서도 침투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치원에서는 우리말 노래와 이야기가 허용되었던 것이다. 식민지시대 전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민족어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교육기관은 유치원뿐이다.⁵

5 이상금, 『한국 근대 유치원 교육사』, 이대 출판부, 1987, 341면.

이처럼 이상금은 기독교의 영향하에 그 당시 일본의 황민화교육 체제에서 유치원은 직접적인 지배 체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에 우리의 말과 노래 및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일한 민족교육을 실현한 교육기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이윤진(2006)은 3·1 독립운동 이후의 한국인의 교육열은 자녀들을 신식 교육기관에 진학시키려는 것과 2세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보급시키려는 복합적인 현상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적정한 규모가 유치원이었기에 전국 방방곡곡의 마을에서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유치원 설립이 뒤를 이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1921년에 39개원(한·일 유치원의 합계 수)이던 것이 1930년대에 206개원으로 10년 동안에 5배의 증가를 보였고, 원아 수에 있어서는 한국인 수만으로 1920년에 809명이던 것이 1930년대에는 8,343명에 이르러 10배의 신장률을 보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가 인가된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한 총독부 통계에 의한 집계이었기에, 실제 미인가 유치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1920년대 급속하게 성장했던 유치원의 설립은 1930년대 후반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해 선교 지원비가 삭감되게 되고, 이 결과 한국 유치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운영이 중단되는 유치원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위기를 체감하게 된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유상제로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그 당시 비싼 월사금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갖춘 가정에서만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월사금으로 재정 운영이 어려웠기에 유아들과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극·연극회, 학예회, 운동회 등의 다양한 유치원 행사를 개최하여 공연료로 번 수익금으로 열악한 유치원 재정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까지를 유지해나갔다.

1920년대 유치원의 증가와 더불어 유치원 보육을 담당할 보모를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 당시 조선여성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해볼 때, 보모를 양성하는 보육학교는 여성고등교육 단계의 최고수준의 학교였으며, 보육학교 출신 학생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여성 중의 한 부류였음을 그 당시 보육기관에서 보모를 모집하려고 공고한 모집요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양해야 유치원보모를 양성함으로써 목덕을 삼는 시내인사동중앙유치 사범과에서는 금년사월의신입할 학생을 좌괴요항에 의하여 모집한다더라

二, 입학자격

1. 품행방정하고 신테건전하며 재학중도에 지망을 변치아니할자
2. 관공사립녀자고등보통학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유한자⁶

이처럼 신문 상에 공지된 입학 자격만 보아도 당대 최고의 엘리트 여성들이 보육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하고 높은 자격으로 입문한 보육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진도 분야별로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체계화된 담당과목은 보육교사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탄탄하였는지 입증해 준다. 한 예로 중앙 보육학교의 1930년대 교수진을 살펴보면,⁷ 아동문학 담당 교사로는 방정환이, 음악 과목 교사로는 홍난파가 기재되어 있다. 악 과목을 담당했던 홍난파는 동요 작곡가로 대대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아동문학을 담당했던 방정환⁸은 그 당시 최고의 아동문학 동인이었다는 점을 본다면, 그 당시 보육학교 및 보

6 『동아일보』 1928.02.11일자 기사 발췌

7 중앙대학교 80년사 편찬실사무위원회, 『중앙대학교 80년사 1918-1998』, 1998, 82면.

육교사의 입지가 굉장히 높지 평가되었던 것만큼 보육과정을 담당했던 교수진 또한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교수진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제 말기 중앙보육 교수 명단에는 김태오도 동화교사로 등장하게 되는데, 추후 김태오는 차사백과 신문지상의 인터뷰 자리에 함께 동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김태오의 영향력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본다.

또한 그 당시 대표적인 보육기관에는 이화보육, 중앙보육, 경성보육학교⁹들이 있는데, 중앙유치원의 초대 원장을 이화학당의 프라이 당장이 맡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중앙보육학교와 이화보육학교는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보육학교들의 실태 분석¹⁰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중앙보육의 학급수와 학생 수가 이화보육보다 많았으며, 특히 중앙보육의 교직원 구성 전부가 조선인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2) 1930년대 보육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 수

연도	교명	학급	교직원수			학생수	의거문헌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1931	중앙보육	2	8	-	-	87	『경기도보(경기도보)』 1931.12.4
	이화보육	2	7	2	4	45	
	경성보육	2	3	-	-	47	
1933	중앙보육	3	8	-	-	108	『경기도보』 1933.6.13
	이화보육	2	8	2	2	55	
	경성보육	2	8	-	-	64	

이처럼 중앙보육학교는 최고의 교수진과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을 통해 보육교사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졸업한 학생들은 최고의 보육교사로 유치원의 유년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했을 것이다.

3. 차사백의 생애 및 담화에 대한 관점

차사백의 생애 자료는 ‘중앙대학교 80년사(1998)’에 제시된 내용을 기본 틀로 하였으며, 동아일보에 소개된 자료 및 차사백의 또 다른 저서인 『인간과정(人間過程,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65)』¹¹의 내용을 첨부하였다.

1) 차사백의 생애

1925.03.04. 『동아일보』 기사에 ‘졸업도 한달밖에 구직하는 이를 위하여 (二)’에 차사백이 ‘교사의 생활’란에 차사백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교육자의 생활

중앙유치원 차사백 양

양은 산수 맑고 경치조흔 황해도 해주태생으로 그곳에서 보통학교와 의정녀학교를 마치었습니다.

그 후 곳 상경하여 리화학당□ 등과에서 사개성상 동안 형설의 공을 닦고 다시

8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정환이 중앙보육학교의 교수로 재직했었다는 사실뿐이다.

‘소년문학의 선구 방정환씨 영면’이라는 제목의 기사 아랫부분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앙보육학교의 시간교수로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잇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동아일보』 1931.07.25 일 자 신문기사)

그곳에서 어떻게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방정환이 아동문학 교수로 재직하였다는 점을 통해 보육과목으로서 아동문학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것과 방정환이 유치원 보육에 큰 관심을 갖고 보육교사의 양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뿐이다.

9 이화보육학교는 1914년, 중앙보육학교는 1922년, 경성보육학교는 1923년에 설립되었다.

10 중앙대학교 80년사 편찬실추위원회, 앞의 책, 1998, 82면.

11 차사백, 『인간과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65.

그리운 고향 해주를 향하여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양은 해주여자계의 선진으로서 모든 괴로움과 땀을 북북하고 자기몸을 돌보지안코 만사개년동안은 자기의 모교 의령학교에서 고등보통과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자교육에 헌신 자랑할 처녀시기부터 (중략) 그 후에 양은 더욱 어린이들의 교육을 목덕하고 외국에 교육제도를 더 배움으로써 자기를 넘어 준 언제나 그림은 정서를 자아내는 고국을 부산역에서 작별하고 일본대판으로 향한 때는 일천구백이십일년 아지랑이 자욱이 끼이는 산과 물이 꽃세계로 변한 양춘사월이였습니다 혈통다르고 언어다른 그곳에서 “관바스”녀학원 사범전수부에 입학하였습니다.



한창 고등에서 두 해 귀족하자 다시 교육에 이 개년동안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리운 고국을 그리면서 때때로 나타나는 모든 불만과 괴로움을 참으면서 업을 닦근 결과 재 작년 봄에 다시 수만흔 일본인 학생 중에서 명예스러운 졸업을 맞친 후 곧 귀국하여 이 유치원에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여 첫 번 착수한 이

육영사업에 조금도 서투름이 업시 착착여의하게 리상을 표현하여 가지고 실행하며 나갔습니다 양은 어리고 튼진란만 하여 거짓됨이 업는 던사 가치 맘이나 외형이 한가지로 고요고 깨끗한 어른애기들을 길러내게 되었습니다.



차사백은 황해도 해주 출생으로 보통학교와 의정녀학교 그리고 리화학당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모교 의령학교 고등보통과 교사로 재직하였다. 그 후 1921년 일본 ‘관바스’녀학원 사범전수부에 입학하여 2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마쳤으며 1923년에 귀국하여 중앙유치원 교사로 취임하게 된다. 그 후 중앙보육학교의 교수로 유치원 교사 양성에 주력하고, 1925년 서울 YWCA 2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장로교 목회자 전필순(全弼淳) 목사와 결혼하였으며, 김활란이 회장을 맡으며 결성한 근우회 서기로 적극 활동하였다. 또한 중앙보육학교 교수인 임영신, 독고선과 함께 조선보육연맹에 가담하였으며, 조선보육협회 조직¹²하고 위원장을 맡아 전국 각지를 돌면서 조선보육강연을 전개하였다. 조선보육협회 활동뿐만 아니라 방정환과 함께 일반 부녀들에게 아동보육에 관한 강연을 함께 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아동보육 분야에서 차사백의 입지와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어린이를 잘 키우고 못키우는 여부는 곳 조선전체의 명일을 살리고 못살리는 것이요 이것은 먼저 어머니와 어머니될 사람에게 달려이슨 고로 부녀들께 보육지식을 가장평이하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텡도교내수단주최로 아동보육 대강연회를 다음과 가티 개최한다더라

일시 오월십삼일월요일부터 동십오일 수요일까지 삼일간 매일 오후 팔시부터 장소 천도교 기념관

- ◇ 제1일 어린이보육법 차사백, 어린이의 심리생활 방정환
- ◇ 제2일 어린이보육법 차사백, 어린이가 크는 여러 시기 방정환¹³

그 후 1945년 미군정 하에서 여학교 교장은 여성이 맡아야 한다고 하여,

12 1931년 7월 조선보육협회(조선보육협회)를 조직하였다. 330여 유치원에서 500여 명의 보모들이 모여 “조선 아동 보육의 이론을 수립 통일케 하며 보육자의 친목을 돈독케 한다.”(『신가정』 1933년 4월호, 50면)라는 강령을 내세우고, 조선에서 처음이요 하나뿐인 보육 단체로 발족하였다. 중앙대학교 80년사 편찬실위원회, 앞의 책, 1998, 97면.

13 『동아일보』 1929.05.12. 일자 기사 「유아보육강연(兒童保育講演)」

6년제의 무학공립여자중학교 개교 초대교장이 되었다.

2) 『보육요체』¹⁴을 통해 살펴본 차사백의 담화에 대한 관점

차사백은 『보육일안』을 출간하기 전에 보육의 목적과 방법을 소개한 『보육요체』를 1936년에 출간하였다. 『보육요체』에서는 보육의 4가지 항목인 유희, 창가, 담화 및 수기의 내용 및 관점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보육요체』에 소개된 담화의 관점을 토대로 『보육일안』의 담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유아가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담화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의 본능’이라고 하며, 담화 중 동화의 5가지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담화 중 동화의 교육적가치

- 일. 유아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사(事)
- 이. 유아의 이상을 구성하는 사
- 삼. 제반입사상(諸般入事上)의 관계를 알게 함
- 사. 자연을 친하며, 동물□□의 정을 무양함
- 오. 타인의 이상을 이해하며 자기사상을 발전하게 된다.¹⁵

‘담화 중 동화’¹⁶라는 대목을 통해 동화를 담화의 하위 요소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담화와 동화를 비슷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동화의 5가지 교육

14 차사백, 『보육요체』, 경성 : 중앙보육학교, 1936.

15 차사백, 앞의 책, 1936, 43~44면.

16 차사백은 담화를 우언, 동화, 신화극영웅담, 사실담화극 우발사항의 담화의 4가지로 구분 짓고 있다.

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는 유아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한다. 유아 시기에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호기심을 만족할 수 있는 담화를 좋아하기에, 실제 경험한 것이 매우 적은 유년자가 동화를 통해 인생제반의 경험을 상상하는 힘을 풍부하게 기른다.

둘째, 유년자의 동화를 들음으로써, 협소한 경험계를 확장하여 인생제반의 경우를 상상하는 힘이 풍부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경험이 적은 유년자에게 ‘가설적 경험’을 주어 동정심과 도의심을 기르고 이상을 조성하게 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동화는 사회적으로 복잡한 관계(부모형제, 친구)를 간단한 형식으로 하였기에, 동화를 들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게 된다.

넷째, 동물과 같은 자연계를 인물화하여 유아의 벗으로 등장하도록 하여 인간에 비해 약자인 동물에 대한 정을 배우도록 한다.

다섯째, 담화를 통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넓게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발표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5가지 교육적 가치는 현재 동화의 교육적 가치¹⁷⁾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동화를 통해 실제 경험하지 못한 상상의 세계

17 현재 제시되고 있는 동화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는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둘째, 동화는 흥미와 호기심을 높이며 지식이나 정보 전달의 효과적인 매체이다.

셋째, 동화를 통해 통합적인 지식을 획득하며 이를 아동의 삶과 연계할 수 있다.

넷째, 동화는 다양한 문학적 재미와 미적 표현을 통해 예술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므로 감성을 풍부하게 하게 한다.

다섯째, 동화를 통해 자연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공동체의식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여섯째, 동화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쳐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다.

서효주, 『동화를 활용한 주제 중심 통합프로그램 실행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6면.

의 경험으로 상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며, 도덕적 이상을 형성하며, 사회적 만남을 통해 맺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담화를 통해 배우게 된다. 또한 동물이나 식물의 자연계를 의인화하여 친구가 되며, 나보다 약자인 동물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담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기회를 갖게 됨을 동화의 교육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또한 유아에게 들려주는 담화의 종류로 4가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1. 우언
2. 동화
3. 신화급영웅담
4. 사실담화급 우발사항의 담화¹⁸

유아에게 들려주는 담화로 우언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다. 우언은 대표적으로 ‘토끼와 거북이’의 이솝우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도덕상의 교훈을 지니고 있다. 반면 동화는 반드시 비교육적인 재료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제시한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신화는 자연적인 인생사와 동일하기에 단순한 유아의 사상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역사상에 있는 영웅담을 통해 용기와 도전심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실담화급은 현재

18 차사백, 앞의 책, 1936, 45~46면. 사실담화급 우발사항의 담화란 용어는 차사백이 『보육요체』에서 제시한 용어로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는 사실 담화로, 우연히 일어나는 유래 이야기는 우발사항의 담화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담화로 전쟁담, 인물담 혹은 인공물 등의 담화를 포함하고 있다. 우발사항의 담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을 제목으로 한 담화이다. 이 중에서 보육자는 유아에게 가장 적당하며 교육적으로 유익하고 흥미에 적당한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동화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유년자의 의무로 아래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1. 부모에게 대한 효행
2. 형제에게 대한 우애
3. 동모에게 대한 친절
4. 동물에게 대한 애정¹⁹

부모에게 대한 효행, 형제에게 대한 우애, 동모에게 대한 친절, 동물에게 대한 애정 등은 유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보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들려주는 담화이기에 교육적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화를 통해 전하고자 한 차사백의 교육적 의도라 해석된다. 반면 타인과 동물에 대한 공포 및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恐怖의 情을 激發)이나 잔혹한 재료(殘酷한 感) 또는 악의 성공을 보이는 것은 동화의 재료로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4. 『보육일안』의 내용 구성 및 분석

『보육일안』은 1938년 차사백에 의해 쓰여진 보육교사들을 위한 활동 지

19 차사백, 앞의 책, 1936, 47면.

도서로서 일년동안 보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보육의 항목인 유희, 창가, 담화 및 수기를 주제에 맞춰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²⁰

본고에서는 『보육일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의 4가지 항목 중 담화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보육일안』 속에 담겨진 담화의 내용은 누가 창작하였을까? 전체적인 저자가 차사백으로 명시된 것 이외에는 담화 속에는 어떠한 작가 인물도 소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차사백이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는 점과 중앙보육의 모태인 이화보육기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할 뿐이다. 그 당시 이화보육기관에서는 창설자인 브라운씨가 『어린이 낙원』과 『어린이 동산』의 두 동화책을 창작하였다.²¹ 이 중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어린이 낙원』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보육일안』과 매우 유사한 내용 및 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²² 『어린이 낙원』의 경우 브라운씨에 의해서 번역되었다는 사실²³을 근거로 본다면, 『보육일안』 역시 창작되었다기보다는 차사백에 의해 번역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대로 방정환이 같은 중앙보육교수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차사백이 외국의 동화를 번역할 때 어느 정도는 방정환의 영향을 많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뿐이다.

그리고 곳곳에 등장하는 전래동화의 경우에는 민족성을 전하고자 하는 차사백의 번역 의도를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차사백은 1931년 7월에 조선보육협회를 조직²⁴하여, 동계 및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 강연회도 많이 열었음을 신문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통해

20 『보육일안』의 서면에는 본서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1. 이 보육일안의 특징을 이해할일 2. 이 보육일안의 이해를 파악할일 3. 아이들에게 단순한 말과 회화식으로 할 일 4. 보육자는 문답을 자유로 몇 번이든지 반복할일 5. 보육작성법에 대하여는 본서하권을 참고할일을 제시하고 있다.

21 1934.05.23. 『동아일보』에서는 『어린이 낙원』 뿌라운리 편역 신간으로 소개하고 있다.

22 『어린이 낙원』에 12번째로 소개된 ‘누에의 녀신’은 『보육일안』의 ‘누에’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23 『어린이 낙원』 서문에 “이 낙원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열어 주시려고 세계의 명작인 십구동화를 번역 역작하신 뿌라운양 고정성용씨에게 또다시 감사하는 바이외다.” 제시되어 있다.

24 중앙대학교 80년사 편찬실무위원회, 앞의 책, 1998, 97면.

서 『보육일안』이 중앙보육기관뿐만 아니라 각지의 보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많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1) 『보육일안』에 제시된 내용 구성

[표 3] 보육일안의 내용 구성표

월별주제	주별주제		요일별주제
4월 유치원 생활급 자연계	1주	유치원	(월)개원식 (화)인사 (수)동무 (목)각시 (금)장난감 장수 (토)어린이와 예수
	2주	자기	(월)손가락 (화)다리 (수)눈 (목)귀 (금)조그만 집 (토)요나와 고래
	3주	가족	(월)고양이 (화)개 (수)산양개 (목)새 (금)증생과 친절 (토)쥐와 고양이
	4주	화원	(월)나무 (화)꽃 (수)자연미 (목)냉이 꽃 (금)정직한 꽃 장사 (토)장미화
5월 단오절 자연계와 종교담	1주	단오절	(월)단오 (화)창포 (수)추천 (목)다니엘 (금)세 용사 (토)황금의 물병
	2주	누에	(월)뽕나무 (화)누에 (수)나비 (목)직조 (금)손수건 (토)실
	3주	가금어	(월)닭 (화)비둘기 (수)거위 (목)계와 원숭이 (금)비둘기와 개미 (토)농사짓는 닭
	4주	종교담	(월)갈대방주 (화)미딴광야 (수)열 가지 재화 (목)홍해 (금)여호수아 (토)담배 피우는 호랑이
6월 자연 식료품 위인담	1주	자연계	(월)아담과 해와(1) (화)아담과 해와(2) (수)낮 (목)저녁 (금)영리한 아이 (토)달님
	2주	식료품 상점	(월)과자 (화)가루 장사 (수)식료품 장수 (목)우유 배달부 (금)집대 (토)효녀
	3주	식료품	(월)빵과 우유 (화)계란 (수)과실 (목)감자 (금)어린 소님 (토)고은 마음
	4주	위인담	(월)기드온 (화)삼손 (수)룻 (목)사무엘 (금)세 동무 (토)고은 마음
	1주	청결	(월)청결 (화)시계 (수)재미있게 놀자 (목)물 (금)백푼이 형제 (토)웃뚜기

7월 청결과 자연계	2주	새 별레	(월)꿀벌 (화)개미 (수)까마귀 (목)거미 (금)흰 새 (토)정직한 요셉
	3주	과실	(월)굴 (화)살구 (수)앵두 (목)복사 (금)조화상자 (토)방학
9월 호외생활 및 가정생활	1주	호외 생활	(월)개천 (화)삼림 (수)땀이 (목)개똥벌레 (금)짚아 (토)박쥐
	2주	부모 형제	(월)양친 (화)부모의 명령 (수)위성톤 (목)삼형제 (금)형제우애 (토)다윗
	3주	타인에게 대하여	(월)조력 (화)예절 (수)손님 (목)남의 은혜 (금)덕 한 개만 있는 아이 (토)이상한 구슬
	4주	가사에 관하여	(월)음식 (화)식사법 (수)식사 기구 (목)식탁 시간 (금)떡 (토)물
10월 승물 자연계 농부의 사역	1주	승물	(월)콜럼버스 (화)기차 (수)우산 만드는 아이 (목)비행기 (금)자동차 (토)고무 풍선
	2주	과실	(월)능금 (화)배 (수)목마른 까마귀 (목)원주(소풍) (금)휴업 (토)분수없는 토끼
	3주	추초 추충	(월)국화 (화)단풍 (수)큰 구슬 (목)귀뚜라미 (금)귀뚜라미와 개미 (토)호랑이 형님
	4주	추수	(월)벼이삭 (화)하늘까지 닿는 콩 나무 (수)콩 (목)밀과 보리 (금)그림 닭 (토)복습
11월 동절 준비	1주	김장	(월)배추와 무 (화)고명감 (수)젊어지는 샘물 (목)삶은 김치 (금)나박 김치 (토)먹으면 죽는 사탕
	2주	가옥	(월)집의 구조 (화)방 (수)복주는 할아버지 (목)세간 (금) 나폴레옹 (토)이상한 유리조각
	3주	불의 원인	(월)불 (화)성냥 (수)배터진 콩 (목)나무 (금)산보 (토)혹 달린 사람
	4주	의류	(월)양털 옷 (화)무명 옷 (수)비단 옷 (목)솜 옷 (금)잃어버린 양 (토)순희의 입
12월 크리스마스	1주	크리스마스 선물	(월)크리스마스 선물 (화)크리스마스 작난감 (수)산타크로스 (목)순남이와 복순이 (금)예수탄일 저녁 (토)복습
	2주	예수의 탄생	(월)세막사 (화)헤롯왕 (수)다른 박사 (목)크리스마스 나무(1) (금)크리스마스 나무(2) (토)복습
	3주	예수의 탄생	(월)예수탄일 전날 밤 (화)예수의 탄생 (수)예수 어렸을 때 (목)예수탄일 축하식 연습 (금)성탄식 (토)방학

『보육일안』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의 기간을 월별로 4주²⁵씩 나누고, 주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제에 맞춰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보육일안』이 보육교사들이 보육기관에서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활용하는 교재인만큼 주제별로 유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적인 담화들이 많이 담겨있다. 이는 앞서 『보육요체』에서 제시한 담화가 가져야 하는 교육적 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보육일안』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의 월 주제와 세분화된 주별 주제, 그리고 한 주의 주제별로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분화된 내용들이 연관되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5월의 단오절 자연계와 종교담’은 요일별 내용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누에라는 주별 주제에 뽕나무-누에-나비-직조-손수건-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2) 『보육일안』에 제시된 담화 내용 분석²⁶

『보육일안』의 담화들은 앞서 소개한 『보육요체』에서 차사백이 제시한 담화의 4가지 종류(우언, 동화, 신화급영웅담, 사실담화급 우발사항의 담화)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화’의 경우에는 ‘동화의 교육적 가치’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겠다.

전체적으로 담화의 제시 방식은 유년들의 생활과 관련된 회화식의 묻고 답하는 문답식의 구성이 많으며, 그림을 그리거나 실물을 보여주면서 대상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담화를 제시²⁷하고 있다.

25 방학식 관계로 12월은 3주로 내용이 구성되어있다.

26 『보육일안』의 직접적인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본고의 형식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연구자가 임의로 띄어쓰기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1) 우언

우언은 노세상 도덕상의 교훈을 간단한 담화로 운함이다. 예례하면 토기와 거북이 이야기라든가(생략) (『보육요체』 45면)

차사백은 생활 속 도덕적 교훈을 담은 담화를 우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보육일안』에 나오는 담화 중 우언에 속하는 이야기는 다시 다른 나라의 우언과 우리나라의 우언으로 구분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서양의 우언의 경우에는 차사백에 의해 대화적으로 번역²⁸된 것들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추가, 수정, 변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다른 나라의 우언

10월 3주 금요일의 담화 내용으로 ‘킷드람이와 개미’라는 제목으로 담화²⁹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미와 벼지이』 이야기가 떠오른다.

(중략) 한킷드람이가 섬돌밑에서 노래만부르고 뛰어다니며놀했는데 찬바람이

27 차사백은 『보육요체』에서 담화 방법에 관하여 주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1) 언어는 명교히하고 이해하기 쉽게하며 우완급□양의 변화가 잇슬 것
- (2) 순서를 분명히 할 사
- (3) 적당한 문답법을 쓰며 유아에 상상사고할 여지를 여할 사
- (4) 유아의 경험한 □□은 만다시 유아로서 스스로말하게해야 기활동성을 만족하게하며 쓰언어의 연습하게 할 사 차사백(1936), 앞의 책, 50면.

28 번역에 있어서 두 가지 급진적으로 다른 접근 중 하나는 등가성의 보급, 즉 원텍스트에 대한 대상텍스트로의 최대한의 밀착이다. 이 관점에서 번역은 원전에 ‘충실’해야만 하고 어떤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되는 관점은, 특정 상황에서 번역된 텍스트가 처음 상황에서의 본래적 기능과 유사하게 기능한다면, 번역가는 대상 청중을 고려해야만 하며 그 결과 변화는 합리적일 뿐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텍스트와 독자 간 적극적인 대화 또는 상호작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관점은 대화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리아 니콜라예바,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2009, 296면.

29 10월 승물 자연계 농부의 사역-제3주 추초, 추충 금요일 킷드람이와 개미 77~78면.

갑자기부러오는고로 아-치워하고 돌틈에드러가잇었서요. 그리고 양식조곰 잇는 것을먹고잇었서요. 얼마아니되어 눈이오고 바람이부는데 양식이떠러져서 먹을것이없었서요 배는몹시끓고 날도칩고 어떻게할수가없으니까 아-내가 개미아주머니한테가서 양식을줍꾸어달라고 하겠따하고 개미집을찾어갓서요. (중략) 「아-죽하님 배끓은 것은 썩안되었지만은 우리가겨울동안먹으라고 부즈런이버러다니는 것인데 꾸어주면 우리도끓을때가잇겟으니까 못드리겟습니다. 그리고웨죽하님은 겨울이을줄모르고 여름에노래만부르고 일하지않었습니까? 일하지않고 쟁른사람은 얼마든지 끓어조종습니다」 하고 대답했서요. 이런 대답을 드른 컷드람이는 배가 끓아서 울면서 내가 웨 일하지 않고 놀기만하고 노래만불렀나하며 후회하고 슬어했서요. (중략) 그러기에 겨울에배끓으지않게 잘먹고살려요 개미는참부지런한놈이여요.

부지런하게 일하는 개미와 노래만 부르고 뛰어다니는 컷드람이 이야기로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이 없어져 개미를 찾아간 컷드람이에게 단호하게 양식은 주지 않고 깨달음만 준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개미는 참 부지런하며,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한다’는 성실함의 교훈을 남긴다.

이와 유사하게 개미의 부지런함을 담은 내용으로 7월 2주 화요일에는 ‘개미’라는 제목으로 담화³⁰가 나온다.

(중략) 개미는 참부즈런한 버러지야요. 어떤곳에 개미집이잇었는데 이집에는 아버지개미 어머니개미 아들개미 네 식구가 살었서요. 하로는 이개미세마리가 쌀알을가지고 들어나가 씨를심으려고 나가든길에 오리가물에서 노는것을보고 아버지개미 「오리야 지금내가 쌀을심을가는데 너 우리와 같이 줌심으자」하었서요. 오

30 7월 청결과 자연계-제2주 새, 벌레- 화요일 개미, 215~217면.

리 「이에 너와같이 쌀심으러갈새가 어디잇니 나는지금 놀러가는길인데」하고 오리는가버렸세요. (중략) 개미들은 할수없이 저의들끼리만 쌀알을몰어다 곡간에 꼭차게쌓아놓고 밥을맛있게지어서 막먹으려니까 오리 고양이 매암이가오더니 「너의들은 맛있는밥을뭇겄구나 우리도좀주렴」 하엿세요. 개미들은 하도기가막혀서 「이에들아 듣기싫다 다-가거라 일얹하고 먹는놈은 도적놈이다. 너의들은 일도얹하고 먹으려고하니 아니주겄다 어서가거라」하고 야단을치세요. (중략) 「그럼 용서하겄다. 이담부터는 그렇게 놀지만말고 일을하여라」하며 쌀을내어 밥을지어 먹엿세요. (중략) 그레 개미와같이 부즈런이 유치원에오고 일도잘해요.

위 이야기에서도 부지런한 개미가 등장하고, 베풀이 대신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오리, 고양이, 매암이 등장한다. 나중에 개미는 먹을 것이 없는 친구들을 용서하여 도와주고, 친구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으며, 우리들도 부지런히 유치원에 다니고 일도 잘하자는 교훈으로 끝맺는다. 두 이야기가 제시된 주제(하나는 10월 승물 자연계, 다른 하나는 7월의 청결과 자연계)가 다르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이야기 플롯은 ‘개미와 베풀이’ 이야기와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10월 4주 화요일의 담화로, ‘하늘까지 닳는 콩나무’라는 제목으로 담화³¹⁾가 소개되는데 ‘책과 콩나물’ 이야기를 번역한 내용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옛적옛날 한시골에 가난한부인이살렸는데 연수라는 딸이하나잇엇서요. 그리고 그집에는 한 염소한마리가잇엇서요. 어떤날은 먹을것이없으므로 장에내다팔지않

31 10월 승물 자연계 농부의 사역-제4주 추수 화요일 하늘까지닳는콩나무 83~85면.

으면 안되게되었어요 그래서연수는 흰염소를끌고 장으로나가는길에 무서운영감
 님한분을 맞났어요. (중략) 그런즉 영감님이말씀하기를 「암아네가콩가지고싶을
 것이다. 오늘밤 이콩을심으면 이밤이채박기전에 뜰에 키가큰콩나무가난다. 그콩
 은 하늘에까지닿게 높은나무가된다」하였어요. (중략) 연수는 그나무를타고 올라
 가보고싶었어요 그래서 콩나무를타고 올라가니까 넓은길이잇서요 그넓은길로조
 곱가니까 이여한부인을 만나게되었어요. (중략) 연수는 그남자가자는새 그금주머
 니들을 갖고고나와서 콩나무잇는데로달러왔어요 그래서 콩나무를타고 집에까지
 내려왔어요 금을많이갓다 어머니께 드렸어요. (중략) 그러나연수는빨리와서 콩
 나무를타고 반쯤내려와보니까 그남자도 내려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소리를지르고 독기를내오시라구 야단을치었어요. 연수어머니는 빨리독기를가지고
 나가니까 막연수가내려와 땅에밭을되텃어요 얼핏콩나무밑을찍으니까 키큰남자
 는평하고 땅에떠러서죽었어요 그리고 연수와연수의어머니는 그금주머니를가지
 고 또암닭을가지고 아주부자로 살었다고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을 연수로 바꾼 것 외에는 기본적인 배경과 스토리가 매
 우 유사하다. 10월에 추수라는 주제 하에 콩과 관련된 이솝 우화로 ‘책과
 콩나무’를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단순하면서도 유년들에게 자연
 스럽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을 듯하다.

② 우리나라의 우연

『보육일안』이 대부분 외국 동화의 번역에 의해 창작된 담화라고 본다면,
 전래동화의 경우에는 우리만의 색채를 담은 민족성을 표현하고자했던 차
 사백의 개작 의도³²가 담긴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특이한 점은 제목

32 『보육일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뿌리운리의 『어린이 낙원』 19편의 동화
 에서는 전래동화를 개작한 동화가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허지연(2011)은 보육 항목의 다른

이 지금까지 상용되고 있는 전래동화의 제목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5월 4주 토요일 담화에서는 ‘담배피우는 호랑이’이라는 제목으로 담화³³가 소개된다.

(중략)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금강산 깊은 산속에 담배먹기를 픽-좋와하시는 호랑할아범이 한분살고 잇었서요 그리고 그산 아래동네에는 조그마한 오막사리 담배피는 곳이잇어세요 (중략) 이때에 조고만 여호한마리가 그곳을 가다가 호랑이담배 피우는것을보고 저도먹고싶어서 아-호랑이아저씨 여기서 담배를 자시네! 그담배맛이 좋겟습니다 그러? (중략) 욕심많은호랑이는 담배달라는말에 짹짹놀라 눈이 둥그래져서 담배봉지를 감치며 허-안되네 나먹을것도없는데 그따위소리지말고 빨리가라고 하엿세요. (중략) 그뒤 호랑이는 담배를먹든채 잠이들어버렸세요. 그러나 큰일이났세요 담뱃불이풀에붙어서 조금씩조금씩 호랑이할아범 앞을 타들어가 조금잇더니 그불이호랑이 누어잇는 가장자리에 뿔뿔아 타올랐세요 그때 호랑이는 아이구 뜨거워 사람살리오 아니호랑이 좀살리오 하고 소리치세요 그리며 야단을하며 막뛰어서 불에서나와 겨우 죽지는않고 살아 나왔으나 그만 털이 꺼끗꺼끗하게 타버렸세요 (중략) 그때 담배불에 털이타서 지금 호랑이털도 얼럭 털럭 하다고합니다.

지금의 전래동화와 비교해보았을 때 제목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배경, 사건 등이 거의 변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월 1주 수요일에는 ‘젊어지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담화³⁴가 소개된다.

대상인 유희와 창가를 두고, 이화보육에서 출간한 브라운리(1930)의 『유희창가집』과 박봉애(1933)와 차사백(1936)의 『유희창가집』을 비교분석하였다. 브라운리의 경우에는 서양 여러 나라의 민요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차사백의 창가집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작곡가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차사백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이라는 맥락 속에서 조선인 교육자라는 사회적 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허지연, 「『이화』가 만든 ‘고급’ 창가집, 『음악학』 Vol. 21, 2011.

33 5월 단오절(자연계와 종교담)-제4주 종교담-토요일-담배피우는 호랑이, 129~130면.

어떤식골에 늙은영감과 마누라가한집에서 아조 재미있게살었습니다. 낮이면영 감은 들어나아가농사를짓고 마누라는집에잇서 살남을삼니다. (중략) 저편에 어린애하나가울고잇습니다. 불상해서 안어주려고보니 그우는목소리와 얼굴이 자기 마누라하고꼭같습니다. 그때야 영감은 그어린애가 저어마누라인줄을알었습니다. 영감은물을알맞치먹어서 젊은농군이되였스나 마누라는 너무욕심스럽게 많이먹 을려고하다가 그와같이고만 어린애가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도 또한 거의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래동화의 스토리와 크게 다른 점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위 담화는 다른 담화와 다르게 그 달의 주제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아, 이 담화를 꼭 삽입하고 싶었던 차사백의 의도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라 추측된다. 11월 토요일에는 ‘혹 달 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화³⁵가 소개된다.

어떤식골에 혹달린사람이 잇섯는데 하로는 산에가서 나무를 벽벽끊어뭉으고 잇섯서요. 나무를끊노라니까 가암한톨이 땀대굴하고 굴러나려왔서요. 그사람은 주머니에 가암을집어놓으며 (중략) 건너편에 정자하나가보였서요 열는가서 나무 집을 내려놓고 쉬고잇섯서요. 한참잇섯는데 갑작이 실검은독개비들이 몰려오는고 로 무서워서 도망질을하라고하나 갈대가없어 쨍쨍매다가 들보우로 기여올아가 업되고잇섯서요. 업되어 내려다보매 독개비들은 은방망이 금방망이를 가졌서요. (중략) 혹달린사람은 이혹에서 나오나도했더니. 이괴수독갑이는 그혹은 내가가 지겏다고하며 떼가지고 가졌든금방망이까지 내주었서요. 이사람은 혹도떼고 은 방망이 금방망이를 가지고와서 큰부자가 되었서요. (중략) 옆집에 혹달린사람이 그말을듣고 올타나도 줌가보겏다하고 지계를지고 나무를하러갔서요. (중략) 독

34 11월 동준비-제1주 김장-수요일 젊어지는 샘물 96-98면.

35 11월 동준비-제3주 불의 원인-토요일 혹달린 사람 121-123면.

개비들은 어떤놈이 우리를속이나 찾아보자하고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천정을쳐 다보더니 앓다이놈보아라 어제도와서 우리금방망이 은방망이를 빼아서가드니 또 왓구나 이놈막때려주자하고 실컷두다려주고 흑한개를 더달어라 이놈하고 한뺨에 마저 흑을붙여주었서요. 그래서 양편에흑을달고 울며 도라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흑뿌리 영감’의 이야기로 나무를 하러 가다가 가얌 한 톨을 주었는데 가얌 깨무는 소리에 독개비가 도망가 은금방망이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기본 플롯에 옆집에 흑달린 다른 사람이 욕심내고 이를 따라했다가 양편에 흑을 더 달고 울면서 돌아왔다는 결론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당대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에 실린 작품과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³⁶ 앞서 2장에서 방정환이 중앙보육의 교수로 재직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보육일안』의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본 담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가얌(개금)이 도개비를 놀라게 한 매개체로 등장한다는 점

—『보육일안』에서는 가얌이라고 하고, 『어린이』에서는 개금이라고 나오는 데, 개금이 개얌의 전복 방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소재의 대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가얌 소리에 놀라 도개비가 도망갔다는 점

셋째, 욕심을 냈더니 앞서 착한 사람이 가졌던 불행이 다시 자신에게 왔

36 『어린이』 제1권 제1호 30~35면에서는 林成綠의 「개금의 덕」 이야기가 나온다. (개금은 개얌의 전복 방언) 욕심 많은 형과 마음씨 착한 장님 아우가 등장하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어느 집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도개비를 만나고 아우가 개금을 깨무는 소리에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도망가게 된다. 아우는 도개비가 두고 간 방망이를 들고 도개비들이 이야기한 곳으로 가서 있을 따서 눈에 넣으니 눈을 뜨게 되고, 김부잣집의 외팔을 살려서 혼인하여 부자가 된다. 욕심 많은 형은 아우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했다가 코가 길어지고 장님이 되어 돌아와 평생 착한 동생의 신세를 지고 살았다는 내용이다.

다는 점

—『보육일안』에서는 흑이 더 달렸고, 『어린이』에서는 장님이 되었다.

반면에 『보육일안』에서는 인물에게 흑이 있다는 것과 이웃 사람이라는 관계로 나오지만, 『어린이』에서는 인물이 장님이라는 점과 형제 관계라는 것이 상이하게 다른 점이기도 하다.

김용의(2011)³⁷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내선일체’라는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흑부리 영감〉을 한일 비교 연구하였는데, 그가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면 『보육일안』에서 등장하는 전래동화가 일본의 동화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우리만의 민족성을 더 표현하고자 했던 차사백의 창작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2) 동화

지금은 ‘동화’가 우언이나 영웅담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상용되지만, 『보육일안』에서는 담화의 4가지 종류 중 하위 범주로 동화가 소개된다.

동화 갖춘 가작의 담화라고 하나 동화와 우언은 기본기가 조금 다르다 우언은 노세상 도덕상의 교훈을 준다 그러나 동화는 반다시 그런것도 아니니 전혀 비교

37 김용의, 『흑부리 영감과 내선일체』,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69~70면.

	일본		한국	
	〈흑부리영감〉	〈흑부리영감〉	〈도깨비방망이〉	
등장인물	노인: 이웃집	같은 마음 사람(비정형화)	형제(정형화)	
장소	나무구멍	빈집	빈집	
요괴(도깨비)의 형상	시각적(구체적)	비시각적(추상적)	비시각적(추상적)	
잔치 노래	주인공이 스스로 잔치에 가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도깨비가 출현	대들보 위에서 잔치 모습을 지켜보다	
흑	「저당」의 의미로 요괴가 흑을 떼어감	흑과 보물을 교환	흑에 관한 모티브가 결여	

육적 재과도 있다. (『보육요체』 45면)

『보육요체』에서는 동화를 앞서 소개한 우연과 구분짓고 있는데, 그 큰 차이점은 우연은 교육적이지만 동화는 꼭 교훈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럼 『보육요체』에서 제시한 동화의 5가지 교육적 가치를 크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와 유아의 생각을 구성하고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크게 이분화하여 동화의 특성을 지닌 담화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유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

4월 2주 금요일에는 ‘조고만 집’이라는 제목으로 담화³⁸가 소개된다.

어떤곳에 조고만 숲풀이잇섯습니다. 숲풀가온데는 조고만 집하나가 잇섯습니다. 조고만집엔 조고만 처녀가 살엇습니다. 어떤날은 조고만 처녀가 조고만 모자를쓰고 그 조고만 집에서나와서 조고만 문을열고 조고만길을거러서 조고만들의 나갓습니다 그리고 조고만 버들나무아래의 조고만 뼈다귀를 보앗습니다. 조고만 처녀는 조고만 목소리로 아-좋다. 이것으로 저녁의 반찬을 해먹자 혼자말을했세요 그리고 조고만 손으로 그것을 집어서 조고만 주머니의 넣고 조고만 집으로돌아왔습다 조고만 처녀는 조고만찬장에 조고만 뼈다귀를 넣고 조고만 이불속으로 들어가 자고 잇섯습니다.(이하 생략)

‘조고만’의 낱말을 반복 사용하고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38 4월 유치원 생활급 자연계-제2주 자기-금요일 조고만 집, 32~33면.

또한 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인이 등장하는 판타지 세계의 이야기로 5월 1주 수요일에는 ‘추천’이라는 제목의 담화³⁹가 소개된다.

(중략) 높이 높이왔다갔다 하는데 조금무서운 듯이 생각될즈음에 바람이 훑 훑하고 불드니 높이날든 순실이는 그만 눈깜작 할시에 어대로인지 바람에 날라가버리고 보이지않았세요(중략) 커다란 돌맹이르 킁킁하고드러다가 수박에다 던져구녕을 내었세요 그래서는 순실이는 그구녕으로 드러가면서 먹었세요 그때 마춤 그발을 왔다 갔다 하고잇든 눈이크고 입도크고 손도크고 무엇이나 몹시도 큰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중 제일큰수박이 구녕이났다고하며 드러다보더니 순실이를 손으로잡어대며 하는말이 이버러지가 그렇게 수박을뺏었다고 중얼 중얼 하였세요 (중략) 지금내꿨속이 가려우니 좀 드러가 글거달라고하며 귀에다 넣어주었세요 그러니까 순실이는 그 캄캄한 귀속에서 왔다갔다하는바람에 간지럽다고 그-큰손으로 귀를타치는바람에 귀속에잇든 순실이는 그만 탁튀어나와져서 공중에함참 뺏 다가 또다시 떠러졌는데 그곳은 전에그네를뺏든 곳이드래요(생략)

그네를 타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펼쳐진 거인 나라의 경험 이야기는 유아들의 상상력을 이끌며, 거인의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수박을 먹는다거나, 꿇속이 가려워서 긁어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등의 유머러스한 요소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다른 거인의 이야기로 10월 1주 수요일에는 ‘우산 만드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담화⁴⁰가 소개된다.

(중략) 웬바람이 훑-하고 불드니만 길남이를 날리고 말었서요. 길남이는 우산

39 5월 단오절(자연계와 종교담)-제1주 단오절-수요일 추천, 72~74면.

40 10월 승물, 자연계급 농부의 사역-제1주 승물-수요일 우산 만드는 아이, 53~54면.

대를 꼭붙잡고 하늘로 작구작구더올러갔어요. 한참이나 떠돌다가 어떤나라에 통하고 떠러졌어요. 길남이는 하도배가 끓아서언어먹을것이나 없나하고 두루두루 살펴보니가 그옆에는 크다란 수박밭이잇는데 수박이 하나열렸습니다. 이수박이 어떻게 큰지들수가 없었으므로 돌멩이를 집어다가 수박을 깨트리고 그속으로 드러가 수박을 싹건할터먹노라니까 수박밭입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키가어찌큰지 하늘에꼭달듯싶었어요. (중략) 내귀소제나 좀해달라고하며 길남이를 귀속에다 넣어버렸어요. 길남이는 귀속에 드러가작구만 왔다갔다 하였드니 이크다란 사람은 고만키가간드러워서 길남이드러가잇는 귀를탁치는바람에 길남이는 이쪽귀로 쏙나와저이집마당에가 떠러졌다고합니다.

거인이 등장하는 두 편의 공통점은 바람에 의해 거인 나라로 날라 간다는 것과, 그곳이 수박 밭이라는 점 그리고 거인이 귤속이 간지럽거나 청소가 필요해서 귤속에 주인공을 넣는다는 것과 다시 바람이 불어서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이 하나의 작품을 보고 주제에 맞춰 부분 수정하여 번역⁴¹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상상의 이야기를 담은 담화 속에서는 유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적인 내용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차사백이 우언과 동화를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으로 동화는 반듯이 교훈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반영된 부분이다.

②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

유아의 생각을 구성하고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

41 『보육일안』은 저자를 차사백으로 책에 명시하고 있는데 각 담화별로는 창작 작가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담화 전체를 모두 차사백이 창작했는지, 다른 책들을 번역하였는지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지 못했다.

는 이야기는 곧 도덕적 교훈을 지닌 이야기라 해석할 수 있다. 『보육요체』에서는 유년자의 의무로 부모에 대한 효행, 형제에게 대한 우애, 동모에게 대한 친절, 동물에게 대한 애정을 제시하고 있다. 유년자의 의무는 곧 갖 추어야 할 도덕적 의무라 해석할 수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에 대한 효행을 담은 담화로는 병든 어머니에게 물을 드리기 위해 물을 구한 아이가 복을 받았다는 담화⁴²와 수염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똑똑한 효녀에게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주어 가난하게 살던 효녀가 부자가 되어 재미있게 잘 살았다는 담화⁴³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어미의 말을 잘 듣는 동물들의 모습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담화도 부모에 대한 효행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형제에 대한 우애의 이야기로는 9월 3주 토요일에 ‘이상한 구슬’이라는 제목의 담화⁴⁴로 서로를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 구슬을 하나 더 얻는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소개된다.

(중략) 그속에는 금은 보석이 많이들어잇었서요 남준이와 복순이는 좋아서 그것을 팔어다가 집도사고 옷감도사서 잘해입고 잘살다가 어른이되니까 집과 돈과 죄다꼭같이난호는데 그구설만은 하나가되여서 난홀수가없었습니다. 그래 오빠는 동생보고 가지라고하고 동생은 오빠보고 가지라고하며 서로안가지겠다고 했서요 그래다못하야 나중에는 그럼우리 얻어온곳에 도로갓다두자고하고 그전에갓든곳에가서 그구슬을 내던지고보니 그바로앞에 아주입분꼭같은 구슬이또하나잇었습니다. (생략)

42 5월 단오절(자연계와 종교담)-제1주 단오절-토요일-황금의 물병, 81~82면.

43 6월 자연 식료품 위인담-제2주 식료품상점-토요일-고혼마음, 162~163면.

44 9월 호회생활 및 가정생활-제3주 타인에게 대하여-토요일 이상한 구슬, 36~37면.

다음으로 동모에 대한 친절로는 친구 때문에 도둑으로 몰리게 되지만 친구를 위하는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는 담화⁴⁶가 소개된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애정으로는 개를 아끼고 사랑하는 영순이 이야기⁴⁶로 마지막 대목에 하느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중략) 하느님아버지, 우리들에게, 동물들에게나, 동물들에게 까지라도 정답게 할수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차사백이 『보육일안』을 통해 교사 및 유년들에게 기독교 사상을 내면화하고자 했던 의도가 확인되는 부분이다. 이는 신화와 영웅담의 담화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3) 신화와 영웅담

신화는 자연급 인성을 통하여 이해되는 바 인간과 동일한 관계가 있다. 영웅담은 역사상에 있는 영웅의 사상을 상상하게 하여 호기의 정, 창험음을 만족하게 한다. (『보육요체』 45~46면)

소개되는 신화와 영웅담의 대부분은 기독교 즉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유대나라 왕족인 다니엘 이야기와 삼용사 이야기⁴⁷ 그리고 모세 이야기⁴⁸와 6월 4주에는 위인담이라는 주제 하에 기드온, 삼손, 롯, 삼우엘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 들이 소개되는 이 모든 담화가 성경 속 인물이라는 점

45 4월 유치원 생활급 자연계-제4주 화원-금요일-정직한 꽃장사, 61~64면.

46 4월 유치원 생활급 자연계-제3주 가족-토요일-귀와 고양이, 48~49면.

47 5월 단오절(자연계와 종교담)-제1주 단오절-금요일-삼용사, 78~80면.

48 5월 단오절(자연계와 종교담)-제4주 종교담-월요일부터 금요일-모세이야기, 117~228면.

이 기독교적 사상을 유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의도로 해석된다. 그 외에 는 와싱턴⁴⁹과 콜럼버스⁵⁰ 그리고 나폴레옹⁵¹ 대한 담화도 소개된다.

(4) 사실 담화와 우발사항의 담화

우발사항의 담화는 일상 우연히 기하는 사건[□]을 제목으로 한 담화이다. (『보육요체』 46면)

현재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담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을 제목으로 한 담화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기를 사실 담화로,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한 관한 유래 이야기는 우발사항의 담화로 규정짓고자 한다.

① 사실 담화: 과학 이야기

4월 4주 화요일에는 ‘꽃’이라는 제목의 담화⁵²가 소개된다.

(중략) 여기픽냄새가 좋은 꽃이 잇세요. 여러동무들께도 냄새가 나지? 여기다 흥빛이 잇습니다. 그가운데 무엇이잇나 자세히 드러다 보아요. 노랑 가루가 붙어 잇세요. 조고만 얼굴 같은 것도 잇습니다.(종자를 보이고 아이로 하여금 만져보게 할 것) 이것은 종자라고 해요. 이것과 이꽃을 대보면 같지않지만 이런 꽃은 다-한 번씩 이렇게 굳은알이되어 그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해빛이 종자를 따뜻이 해주며 이런 말을해요. 「조고만 종자야! 얼른 싹을 내라!」 비가 내려서 종자를 적시며

49 9월 호외생활 및 가정생활-제2주-부모형제-수요일-워싱턴, 20~22면.

50 10월 승물 자연계 농부의 사역-제1주 승물-월요일-콜럼버스, 47~49면.

51 11월 동준비-2주 가옥-금요일-나폴레옹, 111~112면.

52 4월 유치원 생활급 자연계-제4주 화원-화요일-꽃, 53~55면.

하는말이 「적은 종자야 얼른 싹을 내라」 얼른종자가 터지며 두쪽이 되어 파-란
잎사귀가 나와요. 이두 조그마한 잎사귀가 점점 자라서 땅우에 머리를 내밀어요.
이것을 싹이 나왔다고합니다. 해빛은 그싹을 따듯이 해주고 하는말이(적은 싹아!
얼른 크게자라라)그싹은 한잎을 내고 두잎을내고 세잎을내고 네잎을 내어 나무
가됩니다. 해빛은 그 나무를 따듯이 해주며 하는 말이 「적은 나무야 얼른 꽃을 피
라」그러는 중에 나무는 꽃이피요. 이쁜꽃이 피었세요.(생략)

종자가 파란 잎사귀가 되고 싹이 되고 나무가 되며 꽃을 피운다는 식물
의 한 살이를 과학적인 사실을 담아 질문을 넣은 문답식으로 내용을 전하
고 있다. 5월 2주 수요일에는 ‘나비’라는 제목의 담화⁵³가 소개되는데 여기
에서도 나비의 한 살이 과정이 소개되고 있다.

(중략) 나비 앉았던 자리를 보니까 하얀것인데 동무들채송화 씨 보았나? 그래
조그만것이야요 아-채송화씨 같은 것이 잔뜩붙어있었세요 선생님 은하도 이상해
져서 그잎사귀를따다가 선생님책상우에다 놓아두었세요 그래몇일을 지냈는데
아-이상도하지 책상우에 누에 새끼가 앙금앙금 기여가겠지요 선생님은 이에 웬
누에야하고 그잎사귀를보니 그알속에서 벌레가 나왔세요 선생님은 하도이상해서
어찌 나비가 누에알을 낳을가 하고 어디 내 이누에를 길러보리라 하고 길렀더니
얼마후에 고치를 지었세요 선생님은 하도이상해서 그대로몇일을 책상우에 두었
더니 아-그속에서 몇일전에 뿔나무에서 본나비와 똑같은 나비가 나오겠지요 그
제야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누에가 나비가되어알을나서 또누에를 기록도는 것을
알었세요.(생략)

53 5월 단오절(자연계와 종교담)-제2주 누에-수요일-나비, 90~91면.

또한 9월 1주 수요일에는 ‘맘이’라는 제목으로 매미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를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는 담화⁵⁴가 소개된다.

(중략) 그맘이 몸뚱이속에 빈구멍이 있고 옆에는 얇은까풀이 있어서, 살이 그 까풀을치면 바람에 올라나오는 소리가 맴맴하기도하고 어떤놈은 쓰르람쓰르람하기도해요. 맘이소리가 모두 다른 것은 맘이 몸뚱이의 빈구멍이나 또까풀생긴 것이 달라서 소리가달르게나와요. (생략)

이처럼 현재 과학 동화라고 소개되는 형식의 담화가 사실 담화라는 용어로 『보육일안』에 소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우발사항의 담화: 유래 이야기

우발사항의 담화는 사실 담화처럼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유래에 관한 이야기로 유래담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4주 목요일에는 ‘냉이꽃’이라는 제목의 담화⁵⁵로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냉이꽃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

아주오랜 옛날 따뜻한 봄날이였습니다 도량물 쫄쫄 노래하며 흐르는 들판에 하얀냉이 꽃이 흔자피였습니다. (중략) 봄에는 하-얀 냉이 꽃이 그들에 꼬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비하나도 찾아놀러오지않는 쓸쓸한 냉이꽃 들판이였습니다. (중략) 바라보니 애꾸눈의 나비한마리 었습니다. (중략) 이리하여 애꾸나비는 냉이꽃속에서 아주 잘 살게되었습니다. 아-그랬더니 몇 달후에 그나비의 애꾸눈은 차차 나아지지를 안했습니까?.....그것은 냉이 꽃속에 있는 아주단물 오랑캐꽃이

54 9월 호외생활 및 가정생활-제1주 호외생활-수요일 맘이 5~7면.

55 4월 유치원 생활급 자연계-제4주 화원-목요일-냉이꽃, 57~60면.

나 문들레 꽃 속에서는 맛볼수도없는 단물을 냉이꽃에서먹고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냉이꽃에 나비들이 많이웁니다. 노인께서도 냉이쪽을 눈이밝아진다고 하시며 아주좋아 하신답니다.

또한 5월 2주 토요일에는 이를 실로 꿸으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담화⁵⁶가 소개된다. 생활 속 지혜를 담은 내용들을 담화 주제별 소재와 관련시키고 유년들의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내용이 서술되어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중략) 복점이는 바늘에 고흔실을 끼워서 가지고 놀-잘놀았세요 하루는 또 실을가지고 노는데 바늘에 조금남은 실을 이로 물어꿨엇더니 그실끝이 허곳에 매여 달려서 영영 떨어지지를 았았세요 잡아당겨도 소용없고 질경 질경씹어뺨어도 영영떨어지지 았고 그냥매여 달려있고 가위로 실을 잘러 버리면 하루밤만 자고 나서 그다음날 아침에보면 또전처럼 길다랗게 되어잇섯세요. (중략) 하루는 복점이가 꽃구경도 할겸 약물을 먹으러가서 물을떠먹으려고 허끄에달린 실을떼여서 옆에잇는 나뭇가지에 걸어놓았세요 그랬더니 어대서 날러왔는지 새-파란이쁜 새한마리가 꽃나무에 와았엇다가 그실을 입에 물고 후루룩 날러 가버렸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실이 돌아오지았섯세요 복점이는 그다음 부터는 우리와같이 허에 실이 매달려 잇지 아니하니까 퍽 기뻐하였세요 복점이는 다시는 이로실을 꿸지아니하였답니다.

지금까지 『보육일안』에 소개된 담화를 차사백이 규정지어놓은 담화의 4가지 하위 요소(우언, 동화, 신화와 영웅담, 사실담화와 우반사항을 중심으로 담화)에 맞춰 그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56 5월 단오절(자연계와 종교담)-제2주 누에-토요일-실, 96~97면.

5. 『보육일안』의 담화가 지닌 유년문학으로서의 의미

『보육일안』은 1938년 중앙보육기관의 교사였던 차사백에 의해 쓰여진 보육교사 지도서로서, 유아보육의 4가지 항목인 유희, 창가, 담화 및 수기의 내용들이 주제에 맞춰 월별, 주별, 일별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본 고에서는 4가지 항목 중 담화에 초점을 두고 1930년대 보육기관에서 유년들에게 들려주었던 담화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유년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고찰해보았다.

1930년대 아동문학계에서는 모더니즘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도시 아이들의 생활상을 담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며, 특히 유년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 일간지와 아동잡지에 많이 소개되었다. 『보육일안』이 보육교사들의 교육서라는 제약 때문에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보육일안』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유년들의 생활을 반영한 소재와 주제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그 당시 유년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년문학으로서의 자료라 판단된다.

그 당시 중앙보육기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육기관이었다는 점과, 최고의 엘리트 여성만이 보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중앙보육교수들의 구성이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중앙보육기관에서 발행된 『보육일안』에 대한 입지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아동문학의 교수진으로 방정환이 활약하였다는 사실은 차사백이 『보육일안』의 담화 구성 시 방정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 『보육일안』의 담화별 저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차사백의 저서로만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아동문학과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는데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담화들이 수록되어있다는 점은 그 시대 아동문학과의 관련성을 찾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보육일안』에는 주제별로 담화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차사백이 구분지은 담화의 하위 요소인 우언, 동화, 신화와 영웅담, 사실담화와 우반사향의 담화로 구분지어 담화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담화의 내용들을 통해 그 당시 유년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는 것과 차사백에 의해 번역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담화들의 유형들이 유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야기 속 인물을 통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점에서 아동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언으로 소개된 작품들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동화와 내용이 비슷하기에 차사백이 단순히 서양의 동화나 일본의 보육자료를 번역하지 않고 우리의 민족성을 반영하고 싶었던 창작 의도를 엿볼 수 있었기에 의미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보육일안』의 담화를 중심으로 유년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찾아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보육일안』에 수록된 또 다른 보육항목인 유희와 창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유년문학의 동시 측면에서 내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차사백, 『보육일안』, 동광당서관, 1938.
_____. 『보육요체』, 중앙보육학교, 1936.
_____. 『인간과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65.
뿌라우리, 『어린이 락원』, 이화보육학교, 1934.
『어린이』
동아일보

2. 논문 및 단행본

- 원종찬, 「1930년대 동화·소년소설의 변화」, 『창비어린이』 14(3), 2016, 158~175면.
정진현, 「1930년대 <동아일보>유년동화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No.19, 2016.
_____. 「아동문학의 장르 분화와 유년문학의 등장」, 『동화와 번역』, Vol. 34, 2017.
서효주, 『동화를 활용한 주제 중심 통합프로그램 실행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박혜리나, 『유치원유희창가연구』, 민속원, 2014.
허지연, 「'이화'가 만든 '고급' 창가집」, 『음악학』 Vol. 21, 2011.
김용의, 『혹부리 영감과 내선일체』,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마리아 니콜라예바,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2009.
방인옥 외 4인, 『유아교육과정』, 정민사, 2013.
이상금, 『한국 근대 유치원 교육사』, 이대 출판부, 1987.
이운진, 『일제하 유아보육사 연구』, 해안, 2006.
중앙대학교 80년사 편찬실무위원회, 『중앙대학교 80년사 1918-1998』, 1998.

Abstract

Kindergarten Discourse Research on *Boyukilan*

Park Inkyung

As a manual for childcare teachers, written by Cha, Sa-Baek, a teacher of a central childcare institute in 1938, *Boyukilan*(Childcare Daily Program) is composed of four items of early childhood care such as play, song, discourse, and memoirs under the themes in each month, week, and day. In the children's literature world of the 1930s, many works targeting young children were published in daily newspaper and children's magazines.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early childhood literature focused on such works introduced here. However,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spect of early childhood literature focusing on the actual discourses spoken to young children in childcare institute based on *Boyukilan*.

The discourses contained in *Boyukilan* are presented in each theme from April to December. However, this paper analyzed the discourses focusing on four sub-elements(allegory, fairy tale, myth & epic tale, realistic & contingent event discourse) of discourses introduced in *Boyukilan*(Childcare Keypoints as another book by Cha, Sa-Baek).

I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discourses of *Boyukilan* had the possibility of children's literature as such discourses showed the life of

young children of the time, young children's imagination was stimulated by discourses, and the characters experience of discourses aimed to deliver lessons to solve problems in daily life. Also, the contents of traditional fairy tales introduced as allegory could be interpreted as Cha, Sa-Baek's intention to reflect our own ethnicity to discourses of *Boyukilan*, instead of simply translating foreign fairy tales.

■ Keywords: Kindergarten Childcare, Discourse, Early Childhood Literature, Children's Literature

■ 논문접수일: 2018. 05. 15. / 심사기간: 2018. 05.28~06.08. / 게재확정일: 2018. 06.10.